

看護員

麻 醉 師

<수도육군병원 마취과>

육군소령 이 종 선

《필자 소개》

1956년도에 6개월간 마취전학차 미국 Texas州 Brooke 陸軍病院에 다녀온 바 있었던 李鍾善小領은 1959년 또다시 渡美하여 Harrisburg病院 麻酔學校에 入學, 18개월간의 수업과 6개월간의 실습을 마친후 1962년 12월에 미국·간호원 마취사 자격시험 (Qualifying Examination for Membership in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Anesthetists)에 榮譽스러운 合格을 하게 되었다.

奮闘의 階壁에 따르는 것은 難關을 克服하는 가운데 2圓星霜 상은 螢雪의 功이 결코 헛되지 않아 지금은 當常한 A. A. N. A.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Anesthetists)의 會員資格이 있는 마취사로서 미국군 원재 수도육군병원 마취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麻酔學校의 入學資格과 授業 時數》

마취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간호학교를 졸업한 R.N. (Registered Nurse)에 한하여 입학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수업기간은 18개월 내지 2년간 그리고 42과목을 배우는데 그중 특히 중요한 과목은 생리학, 해부학, 화학마취에 관한 약물학 등이다. 학과시간수는 200내지 300시간을 수업해야 하며 임상실습시간은 400~500시간을 해야한다. 1주(수업시간을포함) 40시간이 정해진 근무

시간이다. 또한 매인당 직접 환자담당수는 325 cases 이상이라야한다. 그리고 18개월 수업기간후에는 6개월내지 1년간의 Post-Graduate-Work를 같은 병원에서 실시해야만한다.

미국에는 작주마다 큰병원에서는 대개 마취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認可된 민간 간호원마취학교 총수는 118개나 되며 미국 육군병원마취학교는 Walter Reed A. H. (Army Hospital) Washington, D C., Letterman A. H. San Francisco, California, Fitzsimons A.H. Denver, Colorado, Brooke A.H. San Antonio, 그리고 Lackland A.F.B., Texas에 시설되어있다. 작주 가운데서도 특히 <펜실베니아>주에는 29개의 학교가 있어 가장 많은수를 점하고 있다. 마침내 본인은 그주에 있는 Harrisburg Hospital 마취학교를 선택했던 것이다.

다음은 간호원마취사의 보수문제에 대하여 기술해 본다.

《看護員 麻酔師의 報酬》

마취학교의 입학시 입학금이 다소 필요로 하고 수업기간내에 다소의 학자금 (Stipend)을 주는 학교도 있다. 소정의 기간을 수료 즉 졸업후에는 보통 R. N.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게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환자의 치료문제에 있어서도 병원마다 특유한 기술과 방법이 있어 조금씩 다르듯이(물론 수술을 위해 환자를 마취 시킨다는 하나의 목적에 있어서는 다를바가 없겠지만.....) 간호원 마취사의 대우 문제도 병원에따라 약간의 차이는 없지않다. 그러나 R. N. 은 보통 \$350.00~400.00 받으며 간호마취



**Harrisburg 병원 마취학교 신입생
앞·좌로부터 첫째가 이종선 소령**

사는 \$500.00~650.00까지 받고있으니 5백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여 65,000원 쯤 된다. 이정도 월급이면 미국에서도 다른 직장여성들의 월급에 비해 지지않은 오히려 보통 이상의 보수라 하겠다. 본인도 귀국하기 전까지는 500불이 넘는 보수를 받고 있었으니 현재 한국의 소령인 내가 받고 있는 월급 9,000원에 비한다면 7배나 넘는 거액의 보수를 받았으니 이는 엄청난 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간호원 마취사의 대우가 좋을 뿐만아니라 A. A. N. A. 를 통하여 자기의 희망대로 어느주에서나 취직할선이 손쉽게 됨으로써 편리한 점이 많다.

다음은 미국의 간호원 마취사들의 역사에 관하여 기술해 본다.

《미국의 간호원 마취사들의 歷史》

마취약을 처음으로 발견한 당시에 있어서는 연구의 부족; 기술의 未發達, 不

備된 기구로서 마취를 취급함에 있어 적지않은 위험성을 느끼었던 것이다.

1880년도에 Illinois 주에 있는 Spring Field병원의 졸업간호원으로서 처음으로 마취학을 배우게 하였고 특히 Minnesota 주에 있는 Rochester에 St. Mary's 병원에 계시든 Dr. Mayo가 우수한 간호원에게 마취학을 가르쳐 훌륭한 마취사를 만드려보겠다는 의도에서 마취학 교육을 실시 하므로써 각주에 많

은 의사 간호원들이 동여와 Mayo Clinic에서 교육을 받게되었다. 이로서 간호원 마취사들의 활발한 첫거름을 내어 더디게 될것이다. 따라서 마취교육은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1909년도에 처음으로 正式과정의 School of Anesthesia가 Oregon州 Portland St. Vincent's Hospital에서 창설되었다. 또한 Cleveland에있는 Lakeside병원 외과과장 Dr. George W. Crile 감독하에 Miss Agatha Hodgins 감독 간호원 마취사의 구성아래 1915년도에 마취학교가 창설되었는데 Miss Hodgins는 A.A.N.A.의 총회회장이 되었으며 그는 미국에 있어서의 최초의 간호원마취사의 개척자인것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도 간호원마취사들의 역사는 그리 길지가 못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 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서지않은 선진국가로써 문화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이고 보니

< 紹介 >

역사는 짧다 할지라도 마취계에 있어서도 우수한 기술, 그리고 방법 또한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발달과 성공을 기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비하여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는 간호원마취사가 얼마나 되며 또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하고있는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취학이란 특수분야를 따로 취급하고 있지않는 형편이고보니 마취학교가 없는것은 물론 간호원 마취사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다.

대한 전체를 통해서 40명의 마취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개가 다 M.D.이며 이나라 마취계에 온갖 성의를 배푸려 마취계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다. 따라서 미약하나마 이사람도 마취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써 그분들과 협력하여 열심히 일해 볼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우리나라에도 어서 속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술의 목적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중책을 맡아 훌륭히 일할 수 있는 간호원마취사의 양성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먼저 간호원마취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야만 할것이며 또한 완벽된 마취학교의 창설을 시급히 서둘러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많은 인재를 길러내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에 뒤지지 않은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아닌가?

끝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의 있는 협력을 당부하며 그러한 협조가 있으므로써만이 이나라 간호원마취사의 진로가 개척 되리라 믿는 바이다.

効力  正確

美容劑 + 強肝劑 = 씨·스타

皮膚美容

肝臟에!

500mg의 VC

씨·스타

200mg의 구루구루산

三 一 製 藥